

2013 대수능 오르비산 실전 지침서 (현재 ; 12.10.28.01:00)

(댓글과 함께 지난번에 올라왔던 수능페이퍼 참조했습니다.)

1. 언어영역

< 보편적인 사고로 정확한 근거를 찾아 가장 적절한 답을 찾을 것 > (페이퍼)

듣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듣기때는 듣기만 집중할것 - 언어듣기 풀 때는 메모하기 - 듣기 풀때 쓰기 풀지 말자, - 처음 시험지 받으면 넘겨보지 말고 듣기 문제 미리 읽어본다. - 듣기 4,5번 문제보기 미리읽기 - 듣기 할 때 문제풀지 말기~ 나머지 문제들도 충분히 시간안에 다 풀 수 있을테니까! - 듣기4번할때 초집중하기
	<p>페이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듣기라고 방심하다 놓치면 혼란 속의 1교시를 보낼지도 모름! 손도 풀겸, 메모하면서 듣기. 특히 4~%번 동시에 파악해야 하는 거 잊지마.
쓰기 어휘 어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쓰기어휘어법부터 천천히 풀어 막히는 부분 절대 2번생각하지말고 별표치자. - 언어 쓰기부터 당황하게 된다면 멘탈가다듬기!! - 언어 쓰기 막히면 뒤에 풀고 머리를 활성화 시킨후 돌아와서 푼다. - 쓰기는 어려울 리가 없다. 만약 어려우면, 다시 한번 문제의 조건과 보기에 유의하며 풀어본다. - 늦어도 9시까지 쓰기 다풀기 - 보기조건에 맞추어 글쓰기 문제에서 선택지 두개가 남았다면 문제를 유심히 다시 읽어볼것
	<p>페이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쓰기어휘어법파트에서 버벅대지 말 것. - 연상문제는 주요내용을 표시하면서 연결, -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쉽게 파악 가능한 형식적 측면부터 확인, - 자료활용은 자료의 주요내용을 표시해두고 주제와의 연관성도 반드시 체크. - 글쓰기 계획은 뻔하니까 '주제, 완결성, 상위항목과의 연관, 예상독자' 중에서 나눔. - 고쳐쓰기는 요즘은 맞는걸 고치는 경우보다 틀려서 고치는데 또 틀리는 경우가 多. - 어법은 배경지식 적극 활용해 시간 단축.
비문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문 특히 과학 기술지문 과정 순서설명 한번 눈으로 훑고 별표쳐놔 어차피 돌아와서 그림문제랑 풀어야해 - 정말 킬러인 비문학 지문 하나 골라서 제시문 별로 구조 그림으로 그리면서 풀자 - 비문학 매력적인 오답은 관련없는 2개의 참을 연결하거나 선지 자체에 단어 하나의 오류가 있거나 (선천적) 상식으로는 맞지만 지문안에는 없는 내용을 파악하자 - 비문학에 선후관계를 뒤바꾸거나, 인과관계를 바꾸는 것 등 유의한다. 또한 모순되는 선지들은 없는가? 확인한다. - 표제부제/ 여타의 주제문제 (비문학)이 헛갈리다면 그 제목을보고 전체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따질것 - 지문에서 근거찾기
	<p>페이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문학은 문제부터 파악. 읽으면서 주의해서 봐야할 부분을 미리 체크. 특히 도표, 그림 등이 나와있을 경우 지문 이해의 길잡이로 활용. EBS 연계지문이라도 EBS 지문에 대한 기억이 아닌 시험지의 지문에 근거해서 풀 것. 적절한 줄긋기와 메모는 필수. 적극적으로 읽을 것.
문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학 : 보기부터읽자 보기-지문-문제 순서로 EBS에서 본지문 어차피 얼마 안걸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읽어 - 소설은 반드시 인물에 동그라미를 치자 - 특히 문학부분에서 선택지 두개가 헛갈리다면 혹시 논리적 비약이 있나를 따져볼것. - 시문학 풀때 뒤에 보거나온 문제 먼저읽어보자 지문이해에 도움이 된다
	<p>페이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대시에선 잘 아는 시를 위주로 문제를 해치워나가자. 특히 보기로 나온 정보 잘 활용. 모

	<p>르는 시를 해석할 때는 시어간의 관계를 위주로 해석. 시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방식에 주목. 고정관념을 버리고 철저히 시 속에서 표현한 대로 이해할 것. (내 관념을 주입시키지마!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대소설이 아는 작품이면 작품의 어느 부분인지 파악. 읽으면서 서술시점과 회상, 교차여부 정도는 생각하며 읽기. 역시나 보기 잘 활용. 시공간의 변화 체크할 것. - 고전시가는 상투적인 표현을 잘 넘기고 아는 작품이면 주제부터 적어두고 시작. - 고전소설은 무엇보다 인물파악이 관건. 긍정-부정으로 나누고 다양한 호칭 조심 (인물관계도). 상투적 표현, 고사인용, 장면확장은 무시할 것. 서술자 개입 체크.
<p>전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보기전 10~15분의 새로운 쓰기어휘어법 문제풀이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- 언어 때 절대로 애매하더라도 한 지문에서 시간 끝지 마세요 <p>꼼꼼히 푼다는 마음가짐에 한번 더 보고 한번 더 보고 하다보면 100퍼 시간부족해서 뒤에 찍습니다... 다 맞다는 마음가짐 절대로 안 되요. 차리리 좀 부족하더라도 마지막지문까지 시간안에 다 푼다는 마음가짐 / 붙잡고 늘어난 게임 끝이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어.. 1대1대응 잊지말자! ππ - 애매한 선지가 있더라도 명백한 답이 있기 마련이다. 그게 정답이다 -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 흐름 속에서 문제를 푼다. - 이비에스 내가 아는거 나왔다고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읽는다. - 거의 모든 답은 지문 안에 있어 그치만 가끔은 상식을 요구하기도 해 (녀산,총총) 조심하자 - 시험지확인할 때 EBS연계, 시,희곡여부, 지문배치순서 봐두고 전략세워라 - 9시20~25분까지 30번까진 풀도록 한문제에서 시간지체하지마라 - 애매한문제 체크해뒀다 다풀고 다시보면 보인다 - 제일 취약했던 부분을 떠올리고(시, 고전시, 산문, 비문학) 그 분야를 맨 마지막에 풀자 - 고민한다고 맞추는거 아니다. 시간 줄이는 방법은 속독이 아니라 선지 고민하는거 ㅇㅇ - 날 믿어 - 언어는 헛갈리면 문제에서 어떤 뉘앙스로 묻는지와 선지를 잘봐라. 선지에 쓸데없는 수식어가 많으면 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평가원의 장치일 가능성이 높다. - 맞는 답을 찾는 문제이지 나머지가 답이 아닌 이유를 검증하는 문제가 아니다. 답 찾았으면 된거다. 다른 선지들이 답이아닌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 없다 괜히 그러다 결국 이상한거랑 헛갈려서 낡인다. - 정답은 100% 정답이고 오답은 100% 오답이다. 내가 모르는 것일 뿐 분명히 수백명의 출제자와 검토진은 '누가 봐도 확실한' 답과 그 확실한 근거를 지문 만들 때 어딘가에 장치해놨다. 두 선지가 남았을 때 둘 다 맞는 것 같다면 역으로 . - 듣기 하고 나면 50분, 쓰기어휘어법 10분안에 풀고, 30분동안 풀자.....(작년에 여기서 멘붕와서 말아먹었지.... 이번엔 안읽히면 바로 넘어가자...문학에서 시간 벌수 있어! 넘어가고 시간남았을때 마음가다듬고 다시읽어보자 될거야!) 문학 다 본지문들일거야 그래도 빨리 지문내용 체크하고 문제 풀기! 첫단추 잘 피자^^ <p>★ 멘붕했을 때의 대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손으로 구조도를 그리던 표를 그리던 지문을 짧게 요약하던, 조금이라도 멘붕의 기미가 보인다면 [손]을 쓴다. 이리저리 발산하는 사고를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시킬 수 있다. (2) 지문을 1분 더 들여서라도 요약한다. 부분부분 집착해서 안 보이던것들이 전체 개괄로 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다. (3) 출제자는 반드시 지문의 어느 단락의 어느 한 칸에 그 문제를 위한 근거를 장치해놨다는 굳은 믿음을 갖는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어 일단 듣기 처음할때 긴장이 무조건 최고조이니 양 눈 옆을 손으로 가린다. 옆에 떠는 놈들이 한 명은 있다.. (작년에 느낌) - 지문속에 답이있다. 아무리 어려워도 지문이랑 보기보면 답이 있기 마련이다. - 지문 읽기전에 문제보고 중요 포인트 짚어서 읽자

	<p>- 제발 다음 다시는 빨짓은하지말자. 1.1년동안 문제풀이 순서 상관없이 풀다가 수능 1주일전에 비문학부터 즐라게 빠르게풀고 문학풀기로 결심해서 연습한다고 그게되겠니 그만짓 하지말자 수능날 제발 갑자기 문제풀이순서 바꾸지말자.정해진 계획없으면 그냥 쪽 풀자.(2011 수능 비문학 hell ->멘붕->개망침) - 그리고 제발 언어영역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지말자. 수능 끝나고 채점해서 틀린 문제 집에서 글까 먹으면서 천천히 풀면 왜 틀렸나 싶다 어렵다고해도 정답은 나여기있소 손들고 있으니까 제발 정신만차리고 집중하자. - 질질끌지말기</p>
<p>페이퍼</p>	<p>- 종이 치면 차분한 마음으로 경건하게. 시험지를 받으면 파본 확인하는 척, 넘기면서 EBS 연계지문들을 확인한다. 특히 소설, 현대시, 과학경제, 어법파트쪽 비문학에서 연계여부를 체크할 것. 시험 시작 전까지 연계된 작품들을 대충 떠올리며 대비. - 글을 읽다가 멍돌고 있으면 마음을 차분히 하고 문장의 주어와 동사 위주로 의미를 천천히 이해. 한바퀴 다 보면 마킹+가채점+마킹재확인부터!</p>

2. 수리영역

<풀지 말고 자신있게,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해 정확히 계산할 것. 최후의 일각까지 긴장하며 조건 하나도 놓치지 말 것.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형문제나 3점문제 막히면 너만 막히는거 아니고 배점이 잘못된거야 넘기고 도형문제 반지름보조선 반드시 그릴 것 . 체크순서는 반지름보조선 같은 각과 넓이 길이 닮음 코싸인 싸인 중선정리 원주 각 중심각 순서로 파악한다. 잘 모르겠어도 일단 미지수 2개까지는 상관 없으니 설정하자 - 증명문제는 공식을 이해하려고 노력 못하겠으면 그냥 그 주변이라도 보자 - \sqrt{a} 문제중 a은 참일 가능성이 높고 \sqrt{a} 과정이 반드시 이용된다 - 미적분 무조건 그림그려라 알것같아도 그림그려라 최고차항 미지수일때 0이아닐까 의심하자 - 로그 지수함수 밑조건 진수조건 안따지면 틀린다 수열 및 확률 직접 세는걸 두려워하지 마 그것이 출제의도일 가능성이 높아 - 주관식 풀때 특히 실수에 유의하며, 눈으로 검산하고 넘어간다. 모르는 문제는 일단 넘긴다 - 예시는 공으로 준게 아니다. 예시를 통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자 - 귀납법은 반드시 손으로 써가며 풀자 - 정 모르겠으면 나열하자. 나열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보다 그게 훨씬 이득이다. - 시간이 부족할 때 공간도형은 딱 눈으로 상태보고 빠르게 포기한뒤 그 이외의 것을 다시한번 검토한다 공간도형은 기본 6분이다 - 계산급하게 \sqrt{a} 진수조건따지기 위치문제 출발점확인하기
<p>유형별 풀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렬은 곱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. 케일리헤밀턴정리와 $AB=0$일 때의 역행렬조건을 잘 기억할 것. 그래프의 핵심은 변수$\times 2$는 행렬의 성분합이라는거. - 지수로그의 기본적인 계산은 신속정확하게. 상용로그의 지표가수성질을 잘 기억할 것. 지표는 정수 가수는 0일 수도 있다는 점. - 지수로그그래프는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는게 관건. 지수그래프는 밑이 클 수록 오른쪽이 올라가고 로그그래프는 밑이 클 수록 오른쪽이 내려감. 특히 oh oh 진수조건 oh oh - 등차등비수열은 최$\circ\circ$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충동원. 최대한 시간절약. - 여러가지수열은 기본점화식풀인지 확인. 수열은 막히면 나열해서 규칙성을 찾으면 그만임. 손 놓고 있지 말고 나열해볼 것. 귀납법이 막히면 뒤에서 거꾸로 계산해볼 것. - 수열의극한은 무한대/무한대, 0/0 등의 형태부터 파악할 것. 수렴조건을 잘 따지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0, 그러나 역은 X! 웬만한 반례는 '국민반례'로 해결됨.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첫째항과 닮은비만 찾으면 끝. 특히 첫째항이 어디서부터인지 주의. '끊어먹기'가 가능한지 체크. -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그래프를 잘 파악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일일이 확인해볼 것. 연속 조건에서 좌우극한값과 함수값의 일치여부도 따질 것. - 미분은 도함수의 그래프와 원함수의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것. 극대극소변곡점의 비례 관계와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(=일대일=일대일대응=증가=역함수\circ) 기억. - 적분은 적분상수 빼먹으면 끝남;;; 공식적용해서 되도록 복잡한 적분계산을 줄이도록.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는 치환하거나 양분미분하거나. 구분구적은 시키는대로 그려보면 알 수 있어. - 확률은 요즘은 중복조합이 대세. 중복조합에서 2H3인지 3H2인지 조심. 모든 복잡한 문제도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. 독립시행의 계산, 독립사건배반사건 특징 이해하기. - 통계는 새로 들어온 확률밀도함수의 평균분산 시 계산 조심. 특히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 조건 잊지 말 것. 대칭형 함수의 평균은 무조건 가운데 값!
<p>검산 관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검산할 생각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번 풀고 눈으로라도 검산하세요 검산 할만큼 멘탈 안남아있습니다. - 수리 실수로 틀릴 문제는 검산한다 하더라고 - 검산은 체크해뒀던 문제 먼저보고 주관식보고 모든 문제 검산해라. - 검토의 시작은 문제를 다시 읽는 것이다.

<p>킬러 문제 (ex.30번)</p>	<p>어처구니 없이 계산실수한것보다 발문을 날림으로 읽어서 틀리는경우가 많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리에서 킬러문제는 맨 나중에 풀기 - 수리영역 30번문제. 아마 발견적 추론 문항일거고, 상당히 고난도겠지. - 누구나 읽고 나서 아 어렵네.. 이럴거야 그런데 웃긴건 뭔지 알아? <p>거기서 예시 몇 개 끄적여 보느냐 아니냐가 그 문제 맞추냐 못 맞추냐를 결정해. 예시를 끄적여봐. 뭐가 보일거야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점에 겁먹지마라 4점은 단지..... 2점문제 2개의 합 이거나 3점보다 '조금(1점)' 어려운 정도이다. <p>★ 30번 발견적 추론</p> <p>(1) 나만 어려운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어렵다 (2) 11시 10분 쯤에 한번 1,2분 정도 먼저 건드려본다 너의 무의식을 믿어라. 한번 먼저 건드리고 말고의 차이는 엄청나다</p> <p>(3) 수능 때 일반식을 만들어서 풀려고 하지말고 예시 몇 개의 귀납을 일반화해서 답을 찾아라. 30번은 지수로그 유형을 가장한 수열문제다. 그래프는 특정 점을 몇 개를 찍어놓고 묶음 식으로 사고해라. (4) 96점 맞으면 중간이라도 간다. 30번 맞는 것보다도 다른 29문제를 확실히 맞는게 더 중요하다</p>
<p>시간관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저의경우) 수리(나형) 문풀 순서 : <p>1~5 : 5분 (위밍업,긴장완화,물입시작)</p> <p>-26~30 : 20분 (시간 많이 남아서 침착할때 문제 파악해두기, 한 두개는 꼭 길 안보이고 오래걸리겠다 싶을테니 별표 해놓고 넘어가기)</p> <p>-6~10 : 10분 (멘붕된 머리를 쉬운문제로 식히고 다시 평정심 회복)</p> <p>-16~21 : 25분 (다시 침착하게 머리굴리기, 한개 쯤 모를테니 별표, 무한등비수열 도형문제 계산조심)</p> <p>-22~25 : 5분 (머리 식히기)</p> <p>-11~15 : 10분 (딴거 빨리풀고 약한 증명문제에 5분)</p> <p>-20분 동안 별표친것 풀이</p> <p>-남은 5분은 분명 손이 덜덜떨릴테니 새로운 시도 하지말고 야매로 찍기신공&마킹</p> <p>이건 제 경우입니다... 전 계산실수가 거의 없는 편이라 검토시간 따로 안잡았어요~ 참고하시길..^^ 다들 대박납시당</p> <p>주관식에 적어도 시작한지 50분이후에는 들어가기!</p> <p>-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지 감이 안온다면 어떤 개념이 쓰일지 개념을 적어보고 그문제에 접근하면 수월하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킬러 객관식 풀기전에 주관식 풀어놓고 시간 별자...
<p>전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리문제 막히는거 있으면 바로 넘기기 - 수리에서는 문제에서 구해야하는것에 체크하기! - 수리 풀 때 풀이 날려서 쓰지 말기 - 성공적 수능을 위한 목표점수는 96점이다 킬러 한 문제 반드시 남기고 검산부터 해. - 시간이 부족하면 주관식부터 푼다. 객관식은 수능 답 개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되 - 목표는 96점이다 제발 잊지 마라. 쓸 데 없는 것 만 안 틀리면 중간은 간다. - 내가 어려운건 남도 어렵다. 풀이 깨끗이 정리하며 차분하게 풀자 - 너무 빨리 풀어도, 너무 느리게 풀어도 안된다. - 문제에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,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일까? 생각해본다. 계산이 너무 길어진다면 그건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- 2,3점문제는 빨리빨리풀고 실수할만한문제는 체크 - 4점문제는 무조건들이대지말고 문제랑 대화하면서풀어라 - 혹시라도 막히면 체크해두고 심호흡한번하고 다음문제로 넘어가라 나중에 다시풀면 보인다 - 모든 문제는 수험생이 풀수있게 나오므로 쫓지말고 계속해서 생각하라. - 제발 계산실수좀 하지마 - 수리는 풀이가 떠오르지 않으면 문제를 다시 읽어라. 문제에서 풀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준다.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리는 나에게 있어 어려울 수밖에 없다. 딱 보고 떠오르지 않으면 과감하게 넘어가라. 설령 3개 연속으로 별표를 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아예 생각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넘겨라. - 수학은 주관식->합답형->나머지 순으로 검산한다. 상대적으로 계산실수는 주관식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. 특히 세는 문제. - 문제가 정 안 풀려서 멘붕 올 때는 수학의 전문가를 소환한다 - 3-4문제가 남아서 멘붕 올 때는, '차근차근' 풀자는 생각을 하고 단기목표를 세운다. (Ex) 11시 40분 -> 46분까지 24번 풀기.) 인간의 사고는 멀티가 되는 순간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진다. 멘붕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순간적으로 쪼개서 차근차근 풀어라 - 답의 꼴을 제대로 확인해라. <p>안 그러면 문제는 2n을 묻는데 열심히 풀어서 미지수n 구하고 그걸 답으로 적고 있을 수 있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건을 제대로 확인해라 ; 자연수, 정수 조건 등 - 수리 1등급 할 수 있다! -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자!! -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지 감이 안온다면 어떤 개념이 쓰일지 개념을 적어보고 그문제에 접근하면 수월하다. - 실수 절대하지말것. 꼼꼼히. 특히 나형은 실수 한번에 쭉쭉날라감. - 수리는 뭐 그냥 즐겁게풀어라. 멘붕한다고해서 더 잘풀어지는 건 아니니까 - 모르는 문제는 건너뛰어라 애매하게 풀려고하면 시간만 잡아먹는다 - 건너뛰고 나중에 다시풀면 꼭 풀린다. - 건너뛴 문제 생각하면서 풀지마라 신경쓰지 않아도 내 머리속 어딘가에선 계속 풀고있다.
<p>페이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이치면,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. 시험지를 받으면 넘기면서 눈에 띄는 도형문제들을 체크. 관련된 공식들을 떠올려본다. 매 순간순간 제일 중요한건 문제를 꼼꼼히 읽고 조건을 파악하고 계산실수하지 않는 것. - 문제가 막힐 때는 표지의 큰 공간에 차근차근 계산을 다시 하고 문제의 조건을 꼭 확인. 5분 소요시 별표하고 넘기기. ☆마킹우선☆

3. 외국어영역

<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.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. 시간관리가 생명!>

<p>듣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4, 15,16,17 영어 듣기 보기 선지는 미리 해석해두기 - 듣기는 듣기만 - 듣기풀때 맨뒤에 장문부터 풀자. - 2페이지 듣기 그림나오는거 할때 밑에 보기 해석해놓자
<p>목적</p>	<p>- 쉬운 문제다 괜히 두번 읽지말고 강 문제지 풀듯 풀어</p>
<p>지칭</p>	<p>- 쉬운 문제다 괜히 두번 읽지말고 강 문제지 풀듯 풀어</p>
<p>어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사를 반사적으로 찾아라 대부분 어려운 개념이 아닌 시제와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이다 - 대명사는 수를 확인 재귀대명사 여부를 확인 - 의문사는 THAT WHAT IN WHICH 서로 바꿀 수 있나 확인 - AS는 THAN으로 바꿀수 있나 확인 - HOW HOWEVER 쓰이는 성분에서 확인 - 전치사 2개 못사용 됨 확인 - 도치되면 수 확인 잘 안함 확인
<p>주제/제목 / 요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귀 주제,요지,주장,제목 등은 선택지에서 핵심을 미리 보라 - 주제 제목 요지 그냥 쓱쓱 풀것 - 선지 두개가 헷갈릴경우 지문에서 본 단어가 있는 선지를 지우는것이 현명하다! - 주제제목요지는 키워드를 사용한 반대개념이나 낯시에 조심 - 주제나 빈칸풀때 지문 앞이나 뒤만 읽지말자 전체적으로 읽어보자
<p>빈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빈칸 넘겨라 무조건 - 외국어 빈칸은 맨 마지막에 풀고.. - 빈칸 문단을 무조건 꼼꼼히 해석한다 - 빈칸완성 무조건 지문속에 답이있다 패러프레이징 과 타케팅 이명학은 신이다 - 빈칸문제는 재미있다 겁내지 마라 - 선지 두개가 헷갈릴경우 지문에서 본 단어가 있는 선지를 지우는것이 현명하다! - 빈칸풀다 시간 날리지말고 모르는건 별표치고 넘어가라 나만 어려운데 아니다. - 주제나 빈칸풀때 지문 앞이나 뒤만 읽지말자 전체적으로 읽어보자 ★ 고난도 3점 빈칸이 안 풀릴 때 - 빈칸은 주로 중심내용, 주제문에 뚫린다. 헷갈린다면 제목 유형처럼 역으로 빈칸 선지로 글을 써본다. 단, 역접 표현에 주의한다. - 지문 이해x->다시 읽음->이해x->다시 읽음 의 악순환은 애초에 차단해야한다. 지문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서 조금이라도 멘봉의 기미가 보인다면 수능에서는 더 이상 그 지문은 눈으로 풀 수 없다. 손으로 구조도를 그리거나 지문,선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본다.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그 분야의 전문가를 생각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접근도가 올라간다. 고로 명학T를 소환한다
페이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EBS 지문의 효과를 이용할 것. 단 아는 지문이라고 기억에 의존해 풀면 위험하니 편하게 빠르게 읽되 읽기는 다 읽을 것. 특히 빈칸 내용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선지를 모두 읽고 표현 하나에도 민감하게 가장 적절한 것을 찾을 것.
도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,5부터 해석할 것 - 3번부터 해석하기 도표는 3번부터
페이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간을 벌 수 있는 파트. 신속정확.
일치/불일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기와 지문의 순서가 일치 - 내용일치는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 읽어보자
페이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간을 벌 수 있는 파트. 신속정확. 내용일치에서 일치하는 것인지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혼동하지 말 것.
무관한문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드시 반대어나 말도 안되는 말이 포함
페이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관한 문장찾기의 주제는 첫문장. 첫문장이 완벽한 해석이 필요. 답으로 의심되는 문장은 그 문장을 제하고 읽었을 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.
순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반드시 근거는 있다 생각하면 보인다 - 순서는 b나 c부터
페이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상 단서가 있으므로 접속사, 관사, 대명사, 핵심어구에 집중한다. 주어진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게 중요.
문장삽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시사 대명사 접속어에 주의
페이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상 단서가 있으므로 접속사, 관사, 대명사, 핵심어구에 집중한다. 주어진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게 중요.
요약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요약문 정리 먼저보고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라/요약문은 요약먼저보고 지문읽자
장문독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문독해 거의 스토리텔링이니 마지막에 가장 일반적인 교훈적인 내용이 온다
페이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끝이라고 마음 놓지 말고 마지막 집중력을 발휘. 덤벼거리지 말 것.
eba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뉘에서 본 지문이라고해도 꼼꼼히읽으삼ㅎㅎㅎ 외국어 - 뉘 아는 지문 나왔다고 그냥 잊히 답 찍으시지 마시길 제발 한번만 더 확인해보세여 - 외국어 EBS지문이 많이 변형됐으면, 그 부분에 답이 있다. 마다가스카 딜레마나 하와이문제처럼 - EBS에서 본 내용이라면 어차피 읽는데 얼마 안걸릴 것이다 첨부부터 읽어라
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기는 깔끔하게 해석해라 - 외국어는 시간싸움이다 걱정하지말고 괜히 꼼꼼히 읽지 말고 평소 연습대로 읽어라. - 외국어 쉽다고 생각하지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풀어라. 9평에서 이미 느껴봤다. 100점 맞는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풀지 말고 한문제라도 더 맞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. - 12수능처럼 안 나오는 이상 97점 맞아도 선방하는거다. 빈칸 3점 틀리는 것보다 다른 사소한 문제나 흘리지 말고 확실히 맞아라. - 초반에 러쉬해라. 쉽게 풀린다고 느긋느긋하게 가다가는 10분 남기고 빈칸 5개 남게된다 - 시험 시작 전에 영어 글 10분 읽고 안 읽고는 시험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. -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제발 후딱 제껴라 -갑치지말고 릴렉스. 다읽어야 싶으면 다읽고 100퍼면 빨리풀고 넘기기 - 신의 감각을 믿을 뿐 - 듣기1번 그림문제 조심 듣기 표문제랑 내용일치 미리 선지 봐두기
페이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이치면, 파본 확인하면서 듣기 그림을 봐놓기. 집중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간인 만큼 정신을 맑게. 최대한의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. (자세 바르게!) - 글을 읽다가 멤돌이를 할 때는 주어와 동사를 찾고 필요없는 수식어구들을 생략한 채 차분히 읽어본다. ☆마킹우선☆

4. 탐구영역

사탐	한국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르면 패스 모든 선지를 알 수는 없다 지형도 읽기는 일단 넘기고 - 시간이 없을경우 볼수있다가 틀리다 거의 대부분 A에서 B는 볼 수 없어 - 시간이 모자르면 보기만 바라 보기만 봐도 4:1로 풀 수 있고 - 표는 반드시 손으로 푼다.
	경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역파트 노동량인지 투입자본인지 주의 답은 거꾸로 나온다 - 가는쪽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시간쓰지 마라 - 수요=수요량 아니다 공급=공급량 아니다
	사회문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문제에서 '비율'과 '수'는 다르다!! 조심! - 절대수 상대수 개념에 주의, 그러나 반드시 오답은 아니다 - '기타'와 작은글씨에 주의 역할과 역할행동에 주의 - 자잘한 낚시 주의 유체이탈 실수 주의 - 자연현상 사회현상 어디까지가 밀줄인지 주의 - 사문은 찌질하다 꼬투리 잡히지 말아라 - 사회문화 문제에 답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문제 잘 읽어라. 표분석할때는 상대량인지 절대량 인지를 잘 체크해야돼 자료에서 수치가 뭘 뜻하는지 잘 알고 선택지와 자료를 대응시키면서 풀어야지. 마지막 교시 사회문화는 더더욱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집중하는 것도 잊지마 -최진기라면 어땠을까 라고 되물기
	근현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낫선 사료가 나와도 증거는 존재한다. 작은글씨 유념
	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탐 풀 때는 해당키워드(?)를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글로 쓰기! (사료가 의열단에 관한거라면 의열단이라고 써놓기!!) - 사탐보기 선지 꼼꼼히 읽기!! (ex-정약용은 인간은 선과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.틀린선지!!! why?선은좋아하고 악은싫어하는거임~) - 사문정치 낚시조심 지문독해 꼼꼼히 진심ㅠ
과탐	지구과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구과학의 킬러문제는 천체문제도 아닌 자기가 자신있다고 호언장담한파트에서 자잘한개념으로 나온다 물론 교과서에 다있는 것들이고 부실하기로 유명한 ebs개념설명에 마저 있는 그런 개념들이다.. 몇 번의 기출을 풀면서 그리고 작년수능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호언장담한부분에서 3점날리고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추락했었죠 실제로 정답률보면 그런문제들이 3순위안에 듭니다 - 과탐 1째과목 풀때 막히는 문제는 문제랑 보기 간단히 적어둔 후(수험표 or니 머리속) 다음 과목 풀기 5분전 준비시간에 풀자
	물리 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른손에 샤프잡고 있다고 '오른손법칙'을 '왼손'을 이용해서 쓰지 마라.
	전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요한 말들 줄치거나 표시하면서 꼼꼼히 읽어라 (마찰없음 속도일정 온도일정 일정량의~ 등등)

5. 기타 (전체 영역, 생활, 컨디션 조절 관련)

<p>전 영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오르비 착하신 분들 원하는 대학 제발 가세요! - 막힌 문제는 머리로 풀지 말고 눈으로 푼다. - 전과목 통틀어 특히 언어: 답에 근거를 찾았으면 번호 찍고 넘어가라 괜히 자기가 생각하는게 답이 아닐꺼라 하는 헛생각 하지 마라. 니가찍는게 무조건 답이다. - 옳지 않는, 옳은 구분잘하기! - 10분전에는 무조건 마킹 미리해두고 고민하기 ^^ - 영역 끝나고 절대 답맞추지마. - 혹시언어못봤다고좌절하지마..(이러신분없을꺼라믿어여!) 수외탐잘보면갈수있는대학급이달라진다 - 잠깐 막혀서 안 풀고 넘어가는거는 못 푸게 아니라 이따 풀려고 남겨둔거야. - 풀지마 너만 어려운거 아니니까 - 100점 안맞아도 대학가니 쿨해지세요 제발 - 나에게는 별표7개칠 권리가있다 -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고 도망치고 싶어도 내가 시험장에서 내 인생을 걸고 시험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.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풀어라. 시험장은 전쟁터다. - 제발 옆사람 시험지 좀 그만보자.(컨닝이 아니라..) 자기 속도 맞춰서 풀자. 자기도 모르게 날림으로 읽게된다. -제발 평소보다 더 꼼꼼히 보려고하지말자. 듣기 풀고 12345번 마킹 잘못했나 10번도 넘게 확인하는 삽질하지말자 제발.. - 자리 재수없어서 감독관앞이나 옆걸릴수도 있는데 제발 신경쓰지말자. (재수 때 옆 감독관보고 앞으로 가달라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서 문제 안풀고 뭘 생각했는지모르겠음) - 샤프는 그냥 주는거쓰자..(재수때 내 샤프 쓰다가 감독관이 갑자기 말걸어서 쓰지말라고해서 오히려 해가되면 해가된거 같음 내 샤프 쓰는게 특별한 도움이 되서 쓴것도 아닌데ㅜㅜ) - 제발 모르는건 넘어가자..하늘이 보살펴 주실꺼다..
<p>마인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부 한거 어디 가지 않는다.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머리 속에 있다. 나를 믿어라 - 욕심부리지마라! - 긴장되면 책상 유리에 비친 니 얼굴을 봐. 아... 잘생겼다ㅜㅜ - 수능볼땐 내가 만점자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쳐 - 주위사람 문제푸는속도에 연연해 하지마라 그사람은 ㅂ1ㅂ임이 분명하다. - 지금부터 매일매일 수능당일날 눈감고 5분이어도 수능당일날 어떻게 차를 타고가서 언어영역 어떤식으로 풀고 시물 계속해봐야되요 (손주는) - 백점 맞을 생각 하지 말자 - 항상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감을 가지세요.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가정하에. - 쉬는시간에 답맞춰보면서 큰소리로 답얘기하는 애기들 원치않게 듣게됐는데 답이 나랑 다른것같다. 개가 틀린거다. -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마음먹고 당황하지말것 - 수능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. 전부 내가 배우고 공부한 곳에서 나온다. 백점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고픈 대학 꼭 갈 수 있다. 떨리면 중간에 복식호흡! - 이 모든건 불안에서 비롯된다. 제발 즐겁게 시험 보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자!
<p>생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밥은 적당히 외국어 시간에 즐면 패ㅋ망ㅋ - 밥 적당히 머경. - 근데 수능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전날 백프로 잠못자시는분들나와요 제가 작년 오르비에서 도움받은말인데 눈감고 있으면 잠자는 효과 만큼은 아니어도 효과 있다고 해서 (이거 진짜 맞아요. 아빠가 한의사신데.. 말씀해주셨어요 - 제가 덧붙인거)

마인드 자체게 잠 별로 못잤는데 편안하게 시험봤었네요

제2외국어 볼때쯤 약간의 흥분과 체력적인부담있었어어도

- 전날 놀지말것.

- 잠 안오는 사태에 대비해서 수면유도제 준비 (주의 : 복용 경험 없음 며칠전 테스트해볼것.)

- 수능날 모닝똥 싸기

- 수능날 아침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언어는 기분 안좋으면 글 안 읽히니까 마음 다스리는 연습해두자.